

# ‘멋’ 과 예술적 향취 지닌 우리 옛지도

우리 옛지도의 회화사적 가치...

예술품으로 승화돼 감상의 대상이 되기도

양보경 |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우리나라 고지도의 특징은 회화식 지도, 즉 그림지도가 많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도의 발달과정을 논할 때 회화식 지도에서 기호식 지도로 발달해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 고지도의 특징은 역시 회화식 지도에 잘 나타난다. 우리 선조들은 지역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도를 제작하면서도 예술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지도는 그림이다.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축소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지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일정한 약속에 따라 그림의 형태로 줄여서 나타낸 것이 지도다. 그러나 그림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실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으니 이를 회화식 지도 또는 그림 지도라 부른다. 근대 이후 지표의 사실적 그림보다는 기호를 사용해 간략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록했으니 이것이 기호식 지도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약 5천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점토판에 그린 그림지도를 비롯해, 종이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진흙판, 바위, 나뭇조각, 나뭇잎, 나무껍질, 갈대, 자갈, 뼈, 모래, 짐승의 가죽 등에 그림지도를 그려 자신의 거주 공간을 지도로 표현했다. 경상남도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는 3천년 전 대화강 지류에 살았던 선조들의 생활모습과 환경을 나타낸 훌륭한 그림지도며, ‘요동성총’ 등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도 그림지도가 전하고 있다.

## 진경산수화와 함께 급속히 발달한 회화식 지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지도 가운데 단독으로 전하는 지도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그것도 거의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아마도 이는 고려 말 원나라와의 오랜 전쟁, 그리고 임진왜란·병자호란과 같은 전쟁 와중에 지도들이 유실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지도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고지도의 특징은 회화식 지도, 즉 그림지도가 많은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도의 발달 과정을 논할 때 회화식 지도에서 기

호식 지도로 발달해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 발달 과정을 보면 회화식 지도가 18~19세기에 절정에 이르러 한국 고지도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우리 선조들은 지역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도를 제작하면서도, 예술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지도를 족자나 병풍으로 만들어 감상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으니, 6~10폭의 병풍으로 이뤄진 <평양지도> <함흥지도> <요계관방지도> <군여전도> <금강산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18세기 회화식 지도의 발달은 진경산수화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 숙종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도제작은 화원들이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대로 그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8세기 이후 여행의 증가, 지역간 유통의 증대, 도로의 발달과 교통량의 증대, 북방 및 도서지역과 같은 변방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가 지도 이용을 증가시키고, 회화식 지도의 발달을 가져 왔을 것이다.

먼저 고지도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 보자. 우리나라는 지도가 포괄하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도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즉 천하도(天下圖: 世界地圖), 관방지도(關防地圖), 전도(全圖), 도별지도(道別地圖), 분도(分圖: 郡縣地圖),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천하도는 세계를 그린 세계지도, 관방지도는 군사지역과 변경지역을 그린 군사지도, 전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지도, 도별지도는 도를 단위로 그린 지도, 분도는 군현 및 그 하위 지역을 그린 지도를 지칭한다. 외국지도(外國地圖), 도성도(都城圖), 궁궐도·관아도(宮闕圖·官衙圖), 산도(山圖), 천문도(天文圖), 명승도(名勝圖) 등은 별도의 유형으로 독립시킬 수 있으며, 이들을 아울러 특수도라고도 부른다.

현존하는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단독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1402년)와 같은 세계지도, 정상기(鄭尙駢,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우리나라 지도의 백미로 꼽히는 김정호(金正浩, 1801~1866?)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같은 전국지도, 도별지도 등도 회화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지도들이다.

그러나 특히 회화식 지도의 가치가 발휘된 지도는 군현지도, 그리고 궁궐도·관아도, 명승도, 산도, 도성도와 같은 특수도였다. 이들은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기 때문에 산천이나 경관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우리 옛지도는 '국토의 초상화'

조선 후기에 풍요롭게 제작된 회화식 지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군현지도와 관방지도, 도성도다. 전국 8도의 330여개에 달했던 군현은 물론 군현 내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인 산성(山城), 진보(鎭堡), 감영(監營)·수영(水營)·병영(兵營) 등을 그린 지도들은 대부분 지역을 사실적으로 그린 회화식 지도였다.

대동강에 떠 있는 배모양을 닮은 풍수적 형국으로 평양을 그린 <기성전도>(箕城全圖), 복숭아꽃이 만발한 전주성과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慶基殿)의 신성함을 흰색의 학이 노니는 모습으로 나타낸 <전주지도>(全州地圖), 조선 수군의 총본영이었던 통영의 전경을 담은 <통영지도>(統營地圖) 등은 그대로 예술품이며, 지역의 모습을 충실하게 그린 '국토의 초상화'다.

또한 수도였던 서울의 사산(四山)과 청계천을 중심으로 뻗은 여러 지류들, 도성의 모습을 진경산수화풍으로 그린 정조대의 <도성도>(都城圖)를 비롯해, 같은 이름의 여러 도성도들도 감탄을 자아낸다. 또한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그린 <동궐도>(東闕圖)와 같은 궁궐도, 19세기 전반 서대문 밖의 모습을 그린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그리고 호조·제용감 등 관청의 모습을 담은 <숙천제야도>(宿踐諸衙圖), <추관지> 등의 관서지에 실린 관아도(官衙圖) 등도 당대 각종 궁궐과 관청의 배치, 건축의 구조와 규모, 조경 등을 살피게 해 주는 그림지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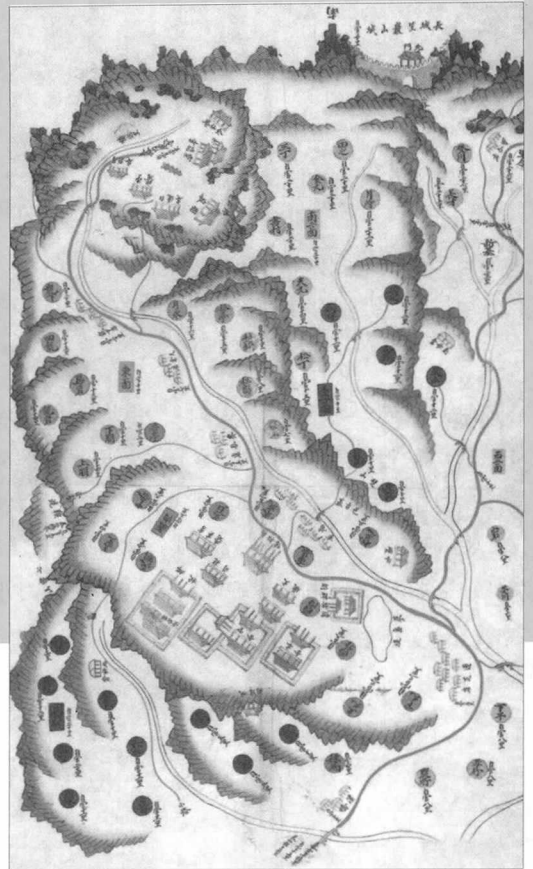
특히 건물을 상세하게 그렸던 이들 궁궐도, 관청도, 그리고 사찰도 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건물, 수목, 산들이 사방으로 누워있는 모습이다. 이는 하나의 시점(視點)으로 지역이나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는 다시점(多視點)의 구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 옛 지도의 또다른 묘미를 느끼게 하는 점이다. 다시점은 지역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이다.

우리의 전통적 지리관념인 풍수적 사고는 지도의 기본구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묘지나 사찰, 산을 중심으로 그린 산도(山圖)나 묘도(墓圖)가 풍수적 구도로 제작된 회화식 지도의 전형이다. 또한 관동팔경이나 관서팔경, 금강산 등의 명승지를 그린 명승도(名勝圖), 계회도(契會圖)와 같은 기록화풍의 지도, 18세기 이후 증대된 민화풍의 지도 등도 회화적 가치가 높은 지도다.

### 지도는 당시의 사회상과 정신세계 반영해

회화식 지도의 장점은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는 점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냈으며,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점에 있다. 그림지도는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지역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 오며, 지역의 산천과 마을, 도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회화식 지도, 즉 그림지도는 지도가 일반인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지도 양식이다. 기호에 대한 지식과 설명이 없어도 상상적이거나 원하는 지역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으며, 예술적 감동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지도는 감상을 위한 예술품으로 가까이 곁에 둘 수도 있다.

회화식 지도는 특히 당시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정보와 당시인들의 세계관과 국토관을 파악



우리나라의 회화식 지도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인들의 정신세계와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사진은 <정음현 지도>(孝陵縣圖)의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한영우 외 지음)에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는 고지도의 특수한 가치기도 하다. 고지도의 특수한 가치란 지도를 심리학적·사회학적·인류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지도에 반영된 지리적 인식을 파악하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부정확한 지도로 치부해 버리는 지도 가운데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공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많다. 옛지도는 일차적으로 그 지도를 그린 사람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지도를 그리게 했던 이용자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탄생됐기 때문이다.

제주지도인 <담라도>(耽羅圖)와 서울지도인 <도성도>(都城圖) 등을 보면 현대인들은 이질감을 느낀다. 지도의 위쪽을 남쪽으로 표시한 방향, 읍 중심부의 상세한 표현과 주변과의 비대칭, 읍 중심부를 지도의 중앙에 그린 것, 글씨들이 여러 방향으로 누워 있는 등의 표현은 당시의 지역을 바라보는 사고, 즉 서울·임금·읍치(邑治)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다.●